



2024.3-4



Canadian National Baptist Convention

에드먼튼한인침례교회
EDMONTON KOREAN BAPTIST CHURCH

지성을 발달시켜 주는 가정예배



가정 예배는 지성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끼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지혜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은 그들의 지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119:13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1:7]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전인격의 변화이며 또한 마음의 변화입니다.(고후 4:4-6; 엡1:18; 엡5:14; 골1:9; 히10:32; 벰전 2:9; 요일5:20)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과 실천은 정신의 발달을 초래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성의 연마이며 그중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지닌 것이 가정예배입니다.

가정 예배의 성경 읽기는 지성을 발달시키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성경이 다루는 주제들은 우리 영혼을 각성시키고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성공회의 고 홀슨리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주석이나 강해서를 보지 않고 가정 예배 시간에 한자리에 둘러앉아 성경만 공부한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지식에 해박하였음은 신기합니다.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며 쉬지 않고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였으니 심오한 철학과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도 그들과 논쟁하여 저들의 신앙을 흔들여 놓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끼친 영향에 관한 걸출한 예로 우리는 [천로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이라는 불후의 이름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매우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가정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 한 요소일 뿐입니다. 기도 자체도 지성을 연마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고 지성을 함양하지 않는 사람은 함양하지 않는 사람은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정신을 집중하는 습관을 갖게 되며 기도는 이와 같은 반복 훈련입니다. 모든 기도 행위는 가장 중요한 대상에 전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을 일깨우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기도할 때 상각과 생각이 서로 연결되는 것은 이성의 역할이며 그것은 결국 행동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 쾌락을 즐기기에 바쁘고 어리석은 것들을 추구하느라 분주하며 일상생활의 고단함에 지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기분을 가라앉히고 세속성을 일소하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참된 경건의 소유자는 필연적으로 생각이 깊고 진지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확산된 기독교 교리는 첨예한 논쟁을 거쳐 체계적인 진리로 확립되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던 성경의 진리를 베를 옆에 앉아 베를 짜거나 밭에서 쟁기질을 하면서 명상하며 쉽게 이해했습니다.

가정 예배의 영향 아래에 있는 마을과 지방과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을과 지방과 나라가 그런 곳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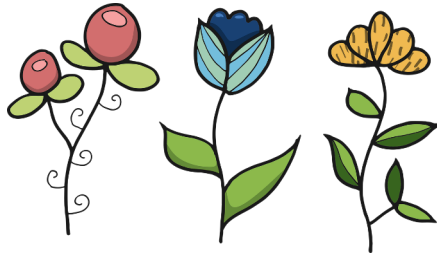
제임스 W. 알렉산더, "가정 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중에서



지구촌 교회 가정예배 순서지, 따라하는 가정예배, 가정예배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2024년 3월

첫째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19-34

팔죽 한 그릇의 거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20 이삭은 사십 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4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 세였더라

27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8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9 야곱이 죽을 썬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말씀나눔

1. 오래도록 자녀를 갖지 못해 간절히 기도하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잉태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리브가는 태중에서 지나치게 움직이는 아이들로 인해 크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태중의 쌍둥이들이 '싸운다'고 표현하였고, 혼란한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한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두 민족이 갈라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성장 과정에 심한 경쟁과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 원수와 같이 쫓고 쫓기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가문에도 비극적인 가정사가 있지만 사람의 갈등과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실패와 절망, 관계의 깨어짐 등을 쉽게 단정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2. 매우 피곤하고 배가 고팠던 에서는 팔족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 넘깁니다. 에서는 자기의 상태가 죽을 지경이라고 지나치게 과장하였고,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가볍게 여겼습니다(32, 34절). 반면 에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장자가 얻을 물질적인 유산만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를 바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나눔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의 모든 힘을 다해 받고 싶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봅시다. 그 축복을 누구에게 나누고, 전하고 싶은지도 함께 나누어봅시다.



맨 마지막 페이지 축복기도 및 중보기도,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2024년 3월

둘째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1-11

이삭의 거짓말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 01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 02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 03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 04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 0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 06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 07 그 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우므로 그 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 08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 09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 10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 11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말씀나눔

1. 아브라함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1절).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삭은 그랄을 거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은 세속적 부요와 각종 우상이 있는 곳으로 부요함을 갈망하는 인간에게는 커다란 유혹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세상의 부요가 손짓한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하여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을 속입니다(7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 자신이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연약함이 아들에게서 반복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일지라도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받은 축복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은혜나눔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떠나서는 안되는 가나안은 어디일까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까요?



맨 마지막 페이지 축복기도 및 중보기도,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2024년 3월

셋째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12-25

우물 쟁탈전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생명 얻은 몸

12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13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6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17 이삭이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18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19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20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1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22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23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시나라 하였으며
24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5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6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7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말씀나눔

1.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녔습니다. 가축이 늘어나고 농사는 백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삭이 부자가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의 세력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이삭이 정착하려는 곳의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우물을 갖기 위해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으로 피했습니다.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은 우물 때문에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던 이삭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함께하셨던 것처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신뢰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약속을 신뢰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은혜나눔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누군가와 경쟁관계에서 다투어본 경험이 있나요? 이삭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맨 마지막 페이지 축복기도 및 중보기도,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2024년 3월

넷째주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사람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1-17

- 01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 02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 03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 04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 05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 06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 07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 08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 09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 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 10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 11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 12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 13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 14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 15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 16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 17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말씀나눔

1. 본문 1절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삭의 육적 상태만이 아닌 어두워진 그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창 25:23)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오로지 자신의 육적인 식탐을 만족시켜 주는 에서를 장자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에서가 야곱의 팔죽에 눈이 멀었다면, 이삭은 에서의 고기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육적인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던 이삭과 에서는, 이후 성경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져갑니다.

2. 반면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추구합니다. 당장 눈앞의 유익을 주고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을 바라기보다, 기다림으로 맛볼 수 있는 미래의 축복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축복을 받는 데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인간적인 계략을 꾸몄고, 눈어두워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챍니다. 그 결과 야곱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장 얻으려 했던 축복은 오랜 기다림과 연단의 시간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육적인 일에만 빠져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속히 이루려는 욕심 또한 잘못입니다.



은혜나눔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나요? 본문 속의 야곱과 같이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급히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는 않나요?

맨 마지막 페이지 축복기도 및 중보기도,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합니다

2024년 3월

다섯째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24:1-12

살아계신 예수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 01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 02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 03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 04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 05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 06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 07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 08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 09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 10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 11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 12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나눔

1.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동시에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의 시체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준비한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새벽에 움직였지만 이미 돌무덤은 열려 있었고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기에 여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설명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2.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한 여자들은 제자들과 많은 여인들에게 달려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 중 복음이기에 지금도 이 부활의 사건을 알려주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은혜나눔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맨 마지막 페이지 축복기도 및 중보기도,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2024년 4월

첫째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9-17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09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0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4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16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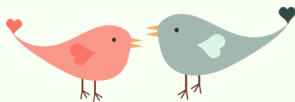
1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말씀나눔

1. 예수님께서서는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마태는 즉각 순종하여 따릅니다. 예수님은 범죄자, 배신자 취급을 받던 많은 세리들과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던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식탁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사회의 시선을 과념치 않으시고, 긴밀히 대화하며 의미 있고 풍성한 교제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이해할 수 없어 따지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을 위해 당신이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그 후로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부르며 조롱합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의 친구이고,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와 자기만족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의에 주리고 목이 말라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2.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 교제를 했던 시기는 바리새인들이 규정한 금식일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규례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묻자 예수님은 결혼 잔치에 비유하시며 신랑(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기쁘기에 금식이 필요하지 않고, 새 천 조각과 새 부대에 담길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아주 새로운 복음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받은 복음으로 우리는 형식적인 금식의 괴로움이 아니라 천국 잔치의 참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나눔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기쁨을 알게 하십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친구는 누구입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 축복기도 및 중보기도,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2024년 4월

둘째주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끄리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1-15

- 0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 0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 0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 0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 05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 0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 0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 0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 0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 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 11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 12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 13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 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 15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말씀나눔

1.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일주일 동안 거대한 축제를 벌이는 그때, 다른 한쪽에서는 이러한 축제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외롭게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1절). 모두가 축제의 분위기로 마음이 들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장 한 많고 소외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된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2. 이들이 병 고침을 위해 머물던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은혜와 자비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속삭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줄 수 없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옴아매어 놓고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베데스다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은혜나눔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오늘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에 반해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베데스다는 어디일까요?



맨 마지막 페이지 축복기도 및 중보기도,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2024년 4월

셋째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23-3:6

23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24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밋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26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27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01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02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03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04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05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06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말씀나눔

1.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다윗의 예를 들어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십니다. 다윗은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신이 왕(하나님)의 비밀 명령을 따라 성전(聖戰, holy war)을 행하는 중이라고 말했고, 아히멜렉은 이것이 레위기 법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빵)을 그에게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이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 23절에 “길을 열며”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다윗처럼 왕의 권한을 가지고 오셨음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에 매여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2.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당시 맹목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을 깨우쳐주시기 위해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완악했고, 헤롯당과 함께 예수님의 살해를 모의하기에 이릅니다. 단순히 노동을 멈추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임을 가르치시며, 자신이 이를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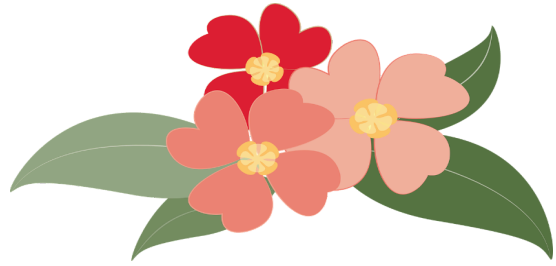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말씀의 문자적 의미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것으로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징죄한 적은 없나요? 나는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가요?

맨 마지막 페이지 축복기도 및 중보기도,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2024년 4월

넷째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9-21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한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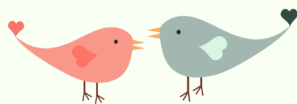
09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10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1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3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14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15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16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9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나눔

1. 안식일 규례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던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고, 거기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겨 고발하려는 마음을 먹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날로만 생각하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몰랐습니다. 안식일은 온전한 예배의 날이자 온전한 회복의 날이기에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중심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바리새인적 신앙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정작 고침 받아야 할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2. 마태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도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며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지 만 모든 발걸음이 온유와 겸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툼과 소란을 일으키는 혁명가의 모습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며 묵묵히 돌보시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은혜나눔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며 안식 그 자체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의 기쁨을 얻은 경험이나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안식을 느껴본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맨 마지막 페이지 축복기도 및 중보기도,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축복기도 & 중보기도

아내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우리 가정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사랑하는 아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의 삶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고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섬기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사랑하는 자녀이름 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녀이름 가 어디로
가든지 자녀이름 의 하나님 여호와와가 자녀이름 과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1:9)

자녀이름 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이름 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이름 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고, 세상의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이름 가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축복기도

좋으신 하나님~
제가 너무 귀한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서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고,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향한 감사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 에드먼튼 한인침례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 날마다 힘써 모여 예배하는 교회,
부지런히 흠어져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주기도문

edkbc.org

